

2005년도 정기총회 정리

- 배평암 회장 체제의 성과와 향후 사업 방향 - 업무 영역 재정립, 사업 확대 추진!

한 국어항협회가 배평암 회장 취임 3년째를 맞아 '어항을 중심으로 한 연안역의 개발'이라는 수산 기반 조성에 신개념을 도입하며 크게 도약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수지 예산이 1백억원에 육박, 배평암 회장 취임 후 2년만에 2배에 가까운 실적을 올리고 있다.

◆ 업무 영역의 재정립

기존, 어항을 위주로 한 발전모델에서 어촌 어항 어장을 일체로 한 발전을 모색하자는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수산업계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어촌·어항법 제정의 취지가 수산기반 선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협회의 업무 영역도 어항은 물론 어촌 어장 분야로 확대가 예상된다.

◆ 사업 확대 추진

우리 협회의 주 업무였지만 실적이 미약했던 기술 연구 조사 분야가 최근 강화되었다. 기술상무이사를 비롯 전문 인력을 보강했고 어항시설물 안전점검 업무 수행 준비, 어장, 인공어초 분야로도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해양환경사업에서도 기존 운영중인 어항청소선과 함께 다기능 해양폐기물 전용 수거선을 추가로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지자체 침체어망 인양 사업 등도 발굴, 어업인들의 조업 생산성 향상에 일조를 하고 있다.

또 어업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촌 관광 분야를 개발, 지난해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 조직 확대 및 업무 혁신

예산규모가 배평암 회장 취임 2년만에 50여억원 수준에서 100억원대로 성장했다.

직원도 28명에서 44명으로 증원되었고 사무실도 확장하는 등 근무분위기도 개선되었다.

올해엔 어항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부를 신설했다.

이와함께 유명무실했던 부설 어항어촌 개발연구소를 활성화시키고자 명칭을 부설어촌어항어장개발연구소로 개칭하고 상근 직원을 2명 채용, 다양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2005년 주요 사업계획

△어촌 어항 어장을 연계한 종합발전과 △항구적 자립경영기반 구축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어촌 어항 어장을 연계한 종합 발전 방향을 모색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어촌·어항법이 제정되면 명칭이 한국어촌어항협회로 개칭되고 이에 따라 기능 및 조직을 정비하고 어촌어항어장을 포함한 명실공히 수산기반 정비 전문 단체로 재 탄생하게 된다.

이에 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수산기반시설의 종합적인 정비, 효율적인 유동기반육성, 어장의 적극적인 보전·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강구한다.

2. 어촌 어항 기술개발 및 조사 연구 강화

어항 어장 시설 설계기준 발간, 선진 어항 설계관련 연구 추진, 어항항공촬영, 어항배후부지 이용계획 수립 추진, 아름다운 어촌 건축모델 공모, 어장 어항 어촌 개발 개념도 제작, 어촌어항 연구 논문집 발간 등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어항시설물 안전점검 업무가 추진되고 외국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 증진 사업으로 제8회 한·일 어항 기술교류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일본전국어항어장대회 참가와 해외어 촌어항조사단 파견도 더욱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술교류 다변화 및 국제협력 증진 사업도 추진된다.

3. 어촌관광 활성화 및 문화 홍보

어촌관광 분야를 활성화하고자 아름다운

어촌찾아가기 행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실시하고 어촌관광 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어촌어항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기술 정보지의 내용을 충실히하고 고급화시킨다. 제4회 자랑스런 어항인 대상 시상과 제10회 어촌어항어장 사진 공모전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어촌 어항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4. 어촌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정비·조사

어항청소선과 다기능 해양폐기물 수거선을 연계시켜 년 150개항 770일의 운항 계획을 세웠다. 이와함께 연안수역 정화 정비사업으로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 해양폐기물 수매사업, 침체어망 인양사업, 어장환경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연안환경 조사사업도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다기능 해양폐기물 전용 수거선 및 어항 청소선의 효율적인 운영과 연안환경조사 사업을 활성화하여 해양폐기물 처리 실시 설계, 가두리 양식어장 정화 방법개발, 어구별 폐기물 발생량 추정 연구 등도 추진 한다.

5. 자립기반 구축 강화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명칭변경과 함께 조직을 개편하고 그에 따른 업무영역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어항시설 이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한 항구적인 수익모델을 개발한다. 어촌 어항 분야 제도 보완을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6. 고객서비스 실현 및 지식 경영 구축

고객만족 중심의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어항 이용자, 시공자 등의 애로사항을 수렴 관계요로에 건의하고 협회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홍보 사업을 적극 개발한다.

지식경영 및 정보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관리시스템(KMS) 및 경영정보 시스템(MIS)의 운영을 정착시키고 어항 시설 관련 정보화 기반을 강화한다. (어촌어항소식)